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살며 생각하며

살아 있는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이 있으며 살아 있으려면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동안은 생각하며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를 한다. 동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

생각에는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분류되며 오늘날 인류 문명사회를 만든 것은 긍정적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발명하고 연구하여 인류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으며,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퇴보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며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일 년 동안 생각하고 실천한 글을 써 왔으며 그것을 신문에 보도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게 했고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해 연말에 편집하여 '살며 생각하며'의 칼럼집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그 칼럼집에 보도된 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인생 행사로 분류했으며 지난해는 230여 편의 칼럼을 썼다. 우리는 하루 생활의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날 한 일과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하루를 반성하는 저녁 시간에 쓴다. 보고 듣고 한 일은 살며 생각하고 느낀 것은 반성이고 다짐이다. 2021년 신축(辛丑)년 흰 소의 해를 맞이했다. 소는 12간지(干支)의 동물 중 가장 크고 인간을 도우며 근면 성실하게 사는 동물이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감염을 이겨 내고 소처럼 건강하게 살면서 근면 성실히 일해 남을 돕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한 해의 목표가 부자와 행운의

복이라면 항상 부자가 되는 긍정적 생각을 해야 하고 행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행운의 복인 성공을 기다려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의 설계도를 배워야 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그 사람으로 부터 부자가 되는 성공을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입어 혼자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었고 성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웃이란 형제자매며 이웃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학연으로 맺어진 선배 친구와 직업으로 일하며 맺어진 이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과 멀어지면 고독하고 고독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웃이 많고 친구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이웃과 친구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면서 사는 생각과 해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신이 나를 돕는다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믿음의 신과 함께 사는 삶은 고독하지 않으며 믿음의 신은 나를 도와 성공의 길로 함께 해주신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도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관선징악(勸善懲惡)을 실천하는 믿음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은 긍정적 생각과 실천을 하게 하여 나에게 풍요와 행운의 성공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한다. 신축년 흰 소의 해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살며 생각하며'가 되었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아르바이트 유혹의 덫 살펴보자

매년 수능시험 이후 이듬해 입학전까지는 일부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시즌이라고 한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 전이나 또는 취업을 앞두고 사회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볼 요량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다. 반면 한편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며 용돈이나 학비 또는 여행경비를 벌어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글을 통해 고액알바라며 현혹성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도 있어 이제 막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한푼이 아쉬운 입장에서 고소득 알바는 분명 수험생들 입장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수험생들을 현혹하기 딱 좋은 알바 조건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더불어 더욱 무서운 현실은 보이스 피싱 조직이 지역 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일당 당일지급 등 달콤한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에 원치 않게 가담하게된 피해자는 범죄자로 낙인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후 피해액수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 더욱 아르바이트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한층 교묘해지면서 불법임을 감추기 위해 아예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정확한 아르바이트 종사분야를 명시하지 않

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여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유해정보는 낯설을 수밖에 없고 관련 범죄피해 인식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칫 불법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유없는 대가는 없다. 또한 자신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많은 월급을 지불하는 업체도 한 없다. 아르바이트 구직 수험생들은 일단 무조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면접장소가 업체 주소지와 다른 곳이라면 일단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의심하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분증, 통장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사업장도 경계해 보아야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

구직시 사전에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수당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알바 구직 수험생들 또한 돈의 유혹에 못이겨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근로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난생 처음으로 임금을 받는 학생들의 미숙한 범죄 상식을 악용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를 강요하는 것 또한 장차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만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또한 내 지식과 같은 마음으로 종사 수험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심어주는 노력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nd social welfare.

Advertisement for Honam Shinmun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